

큰 스님 수행한담

下心에서 시작됩니다



자연은 남의 탓 안하고 자기걱정만 하기 때문에 6개월만 살아도 오롯이 익고 사람은 60년을 살아도 제 역할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가고 있어만 갑니다. 그러나 등이 휘고 간이 타는 구도의 장에서 수행자는 거침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불조(佛祖)를 넘볼 잡아 삼킬 수 있는 거침없는 사자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해를 안 주고, 남을 위해 사는 이타행 수행을 한 까닭에 사리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하심이 수행의 원동력이라면 '외구심'과 '진실'을 바라보는 힘과 이를 믿는 '신념'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만해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효봉스님의 허락을 받고 상선원인 태극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설팔에서 주리를 듣지 6일만에 나는 '천하의 만물은 무비선이 만상은 무비도' (無非禪 無非道)라는 깨음을 얻고 효봉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니까, 따라서 일초도 늦추지 말고 용기와 분심을 내어 수미산을 뛰어 넘어야 비로소 도(道)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해인사에서 어느 법회 때 일입니다. 효봉스님은 법석에 앉아 대중들에게 대뜸 '문수야! 부처를 고아 대중에게 공양해라'고 일갈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문수보살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참구하세요

각합니다. 예를 차리는 '별거랑'과는 다릅니다. 바로 부딪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도를 닦는다고 면벽을 하고 묵묵히 앉아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안됩니다. 도를 깨우치는 데는 말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다. 그러자 효봉스님은 그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라고 호통쳤습니다. 대중 맨 끝자리에 앉아 있던 나는 벌떡 일어나 '효봉은 무슨 맛인지 말해보라'고 반문했습니다. 효봉스님은 당시 대단한 선지식입니다. 이 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 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을 구하는 이는 모름지기 천길 낭떠러지를 뛰어내리고 만길 절벽을 오를 수 있는 기백을 가진 새끼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랐습니다. 그 길로 산으로 들어가 3년간 풀을 뜯어 먹으며 오로지 하심으로 살았어요. 내 존재의 근원을 참구해 가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지던 때였지요. 예전에 부산에 한 보살이 있었습니까. 이 보살은 항상 조책감을 느꼈기에 절에 나오더라도 공양을 받지 않았습다. 죄 많은 사람이어서 부처님의 똥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했던 사람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자연법칙인지요

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나서 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생각이 달라지니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고 자제가 달라지니 삶도 달라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감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고 눈물 많은 슬픔의 밑바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주를 캐려면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주를 캐서 바다를 밖으로 힘차게 솟아오를 수 있겠지요. 마음공부를 하겠다는 분들도 다 자신의 마음 바닥까지 깊숙히 내려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늘 나은 자리에 되놓아라 하는데 놓는다고 다 놓아지는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바닥까지 도달하는 마음의 사무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역검 동안에 쌓여진 업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걸 내 말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입니다. 자연스런 법이지요. 이걸 가타부타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풍수지리·수맥을 알고 싶습니다

풍수지리와 수맥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싶어도 게를 비롯한 생각이 듭니다. 풍수지리와 수맥 따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는지요? (박현신·경기도 광주)

연전에 어느 분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이 '이사를 하고 싶는데 삼재가 들었다고 해서 섯 결정을 못내렸으니 스님께서 결정을 좀 해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살 집을 옮기는데 왜 내가 그걸 결정해 주느냐?' 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주의 주인이요 중삼입니다. 내가 있으니 세상이 벌어진 줄도 알고 우주 삼라만상이 있는 것이 지 내가 없다면 그 무엇인들 소용이

지상상담 길 묻는 이에게. 목자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답변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총림 대웅스님에게 물고 답을 물어서 편집자가 정리·재정리해 줍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88

어찌 놓는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놓고가되 무겁게 놓아라!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참으로 슬픈일도 많이 겪고 뼈아픈 고통도 이겨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나는 그런 경우를 보면 어느 때는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해도 많은 분들이 불법을 알고 그 맛을 볼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인답게, 주인으로서 살아야지 왜 하찮은 것에 걸려서 노예처럼 살아야 하나야 말입니다. 이사를 하는데 방위가 어떻느냐 삼재판이 들었다고 하고 말을 하는데 그거 다 누가 만든겁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걸린다 말이지요.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도 이제 70이 넘고 80 고개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60년 살고나면 늙어지지만, 자연의 생물은 3월부터 9월까지 고작 6개월만 살아도 오롯이 익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공생 지내도 익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연은 남의 탓을 안하고, 자기 걱정만 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익는, 불멸의 세계 불살생의 세계 그 영원 불변하는 세계를 얻는 것입니다. 자연은 날 때 나고, 클 때 크고, 꽃피고 열매맺을 때 열매맺고, 익을 때 분명히 결실을 보지만 우리 인간은 크지만 할 뿐 익을 줄 모르기 때문에 늙어 썩어가고 버림받는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열반 잘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나도 자연이요 자연도 나입니다. 나와 자연이 별개 아니네 내가 나를 어찌했습니까? 풍수지리나 수맥이다 하는데 설사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나와 땅이 풀이 아니라면 땅의 풍수가 내 풍수로 땅의 수맥이 내 수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보고 우주의 주인답지 못하게 이끌고 저렇게 한다면 이래도 좋게 되고 마는 것입니까? 본래 고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잔뜩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이니 나온 자리에 또 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가령 누가 내게 가져다준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준 곳에 되돌려 주어야 하겠지요.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법을 깨닫기 위해 6년동안 고행하셨다 했지만 사실 오백생(生)동안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한 생도 노력않고 댓가만 버리고 있지요. 이 열반 해탈법은 오로지 일심으로 구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열반력을 찾는 구도자가 됩시다.

그런데 내가 수역검동안 만들어서 짊어지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니 나온 그 자리에다 다시 놓아서 녹이려는 것이지요. 용광로에 무쇠 잡쇠 온갖 쇠를 집어 넣으면 녹아서 재생이

현수막. 1. 진리의 동들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2.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3. 부처님 오신 날. 4. 크기: 90cm x 2m 가격 30,000원. 5.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 마음을 맑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사보 (5월호, "부처님오신날"특집호) 제작. 1년에 단 하루뿐인 4·8월. 평소 우리 불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기에 일부러 마음내어 찾아오는 사람 사합들. 이 분들을 우리 사합의 불자로 만들 수는 없을까? 동광암의 1/7(주당당 5원씩 경우) ~ 1/40(연봉 3만원 경우) 포교·교유비로 회향할 때 그들과 우리 사합은 소중한 인연의 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님의 지극하신 뜻을 일회용이 아닌 정기사보(5월)로 정년불자그를 善友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년 단 하루뿐인 4·8월. 평소 우리 불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기에 일부러 마음내어 찾아오는 사람 사합들. 이 분들을 우리 사합의 불자로 만들 수는 없을까? 동광암의 1/7(주당당 5원씩 경우) ~ 1/40(연봉 3만원 경우) 포교·교유비로 회향할 때 그들과 우리 사합은 소중한 인연의 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님의 지극하신 뜻을 일회용이 아닌 정기사보(5월)로 정년불자그를 善友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년 단 하루뿐인 4·8월. 평소 우리 불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기에 일부러 마음내어 찾아오는 사람 사합들. 이 분들을 우리 사합의 불자로 만들 수는 없을까? 동광암의 1/7(주당당 5원씩 경우) ~ 1/40(연봉 3만원 경우) 포교·교유비로 회향할 때 그들과 우리 사합은 소중한 인연의 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님의 지극하신 뜻을 일회용이 아닌 정기사보(5월)로 정년불자그를 善友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하십시오! 태아가 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글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있다. 18. 당뇨와갑상선고통받는다.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사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